

고1국어
신사고

4(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내신형·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형 기출 문제

최다 빈출 유형

교과서 학습 활동에 제시된 대화나 이를 변형한 형태의 대화를 <보기>로 제시한 뒤 대화에서 드러나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습 활동에 제시된 대화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같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기 : 경민아. 어떡해, 큰일 났어.
 경민 : 왜? 무슨 일이야?
 은기 :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경민 : 왔던 길은 다시 가 봤어?
 은기 : 다시 가 봤는데 없었어.
 경민 :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안 나? 가방은 찾아봤어?
 은기 : 벌써 찾아봤지. 근데 없어.
 경민 : 우선 학생증 재발급 신청하고, 지갑을 주운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벽보를 붙여 봐.
 은기 : 정말 속상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경민 :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가방에 넣어 두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해서 잘 보관했어야지. 앞으로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은기 :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
 경민 : 응? 갑자기 왜 화를 내?

1. 위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경민은 은기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② 은기는 대화를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③ 경민은 대화를 감정을 소통함으로써 협력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 ④ 은기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민이 도움을 주지 않고 질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경민은 은기가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위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기는 경민이가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② 은기의 의사소통 방식은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대화 참여자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경민이는 은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대기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은기가 화가 난 이유는 경민이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경민과 은기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위 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기는 경민이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은기는 경민이가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 ③ 경민은 은기를 도와주려는 자신의 마음을 은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경민은 대화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고,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⑤ 은기는 대화를 의견을 통일하는 과정으로 보고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일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4. 위의 의사소통 모습과 가장 유사한 상황은?

① 학생1 : 나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혼나서 속상해.

학생2 : 그러게. 수업을 잘 들으라고 했잖아. 수행평가도 잘 보고 얼마나 좋니?

학생1 : 너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② 소연 : 저 내일 버카충하게 만 원만 주세요.

엄마 : 버카충? 처음 듣는구나. 그건 무슨 벌레니?

③ 어사 : 저 농부 여보시오. 검은 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농부 : 그러기에 밝으라고 벋 달았지요.

④ 환자 : 요즘에 팔다리가 약간 저리는 것 같아서.

의사 : 연세가 있으셔서 수근관증후군이 올 수 있습니다.

환자 :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⑤ 칠봉 :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

나정 : 맞나?

칠봉 : 뭘 자꾸 '맞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나정 : 맞나?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남원에 내려오던 이 도령은, 농부들을 만나 촌향에 대해 묻는다. 그들로부터 촌향이 정절을 지키느라 사또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지도 않은 다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 어사가 농부에게 물어 이르되

“저 농부 여보시오. 검은 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 농부가 대답하되

“그러기에 밝으라고 벋 달았지요.”

“벋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

“덥기에 성엿장 달았지요.”

“성엿장 달았으면 응당 차지?”

“차기에 소에게 양지머리 있지요.”

이렇듯 수작할 때, ㉠ 한 농부가 달려들며 이르되

“우스운 자식 다 보겠다. 언어먹는 비렁뱅이 녀석이 반말 짓거리가 웬일인고? 저런 녀석은 근중을 알게 혀를 뿌리째 뺨까보다.”

그중의 ㉡ 늙은 농부가 달려들며 말하기를

“아서라. 애, 그런 말 마라. 그분을 자세히 뜯어보니, 몰골은 비록 허슬하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 도포 자락이 아주 맹물은 아니로다. 저런 사람이 어사 같아서 무서우니라.”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양반 신분에 어울리는 어휘를 사용하여 ㉡을 조롱하고 있다.

② ㉡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응수하고 있다.

③ ㉡이 ㉠에게 화를 낸 것은 ㉠을 비렁뱅이로 보았기 때문이다.

④ ㉡은 나이가 많아도 대화 상대보다 신분이 낮으면 높임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은 ㉠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

6. 다음은 윗글에 나타난 사회 방언의 양상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수 : 어사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농부에게 예의를 갖추고자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② 진호 : 어사는 농부에게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모두 사용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어.

③ 시형 :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 질서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다르게 사용된 것 같아.

④ 주연 : 한 농부가 어사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보아 신분보다는 나이에 따른 높임 표현을 더 중시했던 것 같아.

⑤ 동현 : 어사가 언어유희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아 언어유희는 당시 양반 계층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

7. 윗글에 제시된 '촌향전'의 한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사회 방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어사'와 '농부'는 각기 자신의 신분에 맞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양반과 평민의 구별이 분명한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 질서에 따른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 도령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으로 청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늙은 농부는 이 도령의 신분이 높다고 판단해 다른 농부가 이 도령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다.

8. 윗글의 등장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도령'은 '농부'에게 '아니한지, 더우려니, 차지'와 같은 낮춤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 ② '농부'는 '이 도령'에게 '달랐지요, 있지요'와 같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 ③ '농부'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도령'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④ '한 농부'가 화를 낸 까닭은 '이 도령'을 양반이 아닌 거지로 보았기 때문이다.
- ⑤ '늙은 농부'는 '이 도령'의 태도와 옷차림을 보고 양반으로 판단하여 화가 난 '한 농부'를 말리고 있다.

9. <보기>의 내용을 통해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개인적 특성 외에도 세대, 성별, 지역과 같은 집단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인층과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화제나

사용하는 어휘, 표현 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는 말투, 표현, 억양 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어휘나 억양 등에 차이가 있다.

엄마 : 소연아, 친구 생일 선물은 무엇으로 할지 정했니?

소연 : 생선은 문상이 최고죠!

엄마 : 갑자기 웬 생선? 그리고 문상을 간다고 누가 돌아가셨니?

소연 : 생일 선물로 문화 상품권을 준다고요. 참, 조 내일 버카충하게 만 원만 주세요.

엄마 : 버카충? 처음 듣는구나. 그건 무슨 벌레니?

- ① 지역 간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② 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개인적 특성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성인층과 청소년층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성별에 따라 어휘나 말투, 표현, 억양 등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 <보기>의 상황에 대한 철수와 영희의 대화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영호 : 안녕? 나는 김영호야. 우리 같은 동아리니까 친하게 지내자.

윤석 : 응…….

영호 : 그게 다야? 네 이름은 뭐니?

윤석 : 김윤석.

영호 : 윤석아, 나는 1반인데 너는 몇 반이야?

윤석 : 3반.

영호 : 혹시 나랑 말하는 게 불편해?

윤석 :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 ① 철수 : 영호와 윤석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서로 기분이 상한 것 같아.
- ② 영희 : 영호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이고, 윤석이는 내성적이고 낮을 가리는 성향으로 보여.
- ③ 철수 : 그래.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영호의 태도에 윤석은 불쾌할 수도 있겠는데.
- ④ 영희 : 두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른 것은 집단적 특성의 다양성 때문이라 볼 수 있겠네.
- ⑤ 철수 : 앞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

11. 다음 대화를 읽고, 상황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듣기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회사에서 A, B는 직장 동료이다.)

A : 요즘 날씨가 아주 덥네요. 오는 길에도 무척 더웠죠?

B : 네.

A : 음……. 아침은 드셨나요? 더울 땀 입맛도 없는데 뭐라도 먹어야 하니 걱정이예요. 요즘엔 음식도 금방 상해서 배탈이 날까 봐 아무거나 먹지도 못하잖아요.

B : 그렇죠.

A : ……커피 드시겠어요?

B : 아니오.

A :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나요? 물어보는 말에 모두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시네요.

B :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 ① A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호하는 상대의 기질이나 성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군.
- ② A는 집단적 특성으로서, 성장 과정에 따라 선호하는 말투가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였군.
- ③ A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지역 간 어휘나 억양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군.
- ④ A는 집단적 특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표현이 다른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였군.

- ⑤ A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화제가 다르다는 것은 고려하지 못하였군.

12. <보기>의 대화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을 가장 적절하게 말한 학생은?

<보기>

철봉 :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

나정 : 맞나?

철봉 : 뭘 자꾸 '맞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나정 : 맞나?

철봉 : 하하하하하.

나정 : 니 지금 나 놀리는 기지?

- ① 갑수 : 세대 간의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 ② 을수 : 말하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오해를 했기 때문이야.
- ③ 병수 : 각자 살아왔던 지역 간에 사용하는 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 ④ 정수 : 각각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거야.
- ⑤ 무수 :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말하기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경민 :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가방에 넣어 두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해서 잘 보관했어야지. 앞으로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은기 :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
경민 : 응? 갑자기 왜 화를 내?

<조건>

'은기의 대화 방식은 ~ 과정에 해당하고, 경민의 대화 방식은 ~ 과정에 해당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답> ①

경민은 '정말 속상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와 같은 은기의 말에도 그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올바른 지갑 간수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민이 은기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만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은기가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은기는 대화를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속상해하는 은기에게 올바른 지갑 간수 방법을 가르치는 경민의 태도를 통해 경민이 대화를 감정을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경민이 '우선 학생증 재발급 신청하고, 지갑을 주운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벽보를 붙여 봐.'라고 말한 것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은기가 경민에 대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보기>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생각은 은기가 경민에 대해 가졌을 직한 생각이다.

2. <답> ②

<보기>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화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여기는 인물은 은기가 아니라 경민이다.

① 은기가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공감해 주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드는 경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기가 화를 내자 '응? 갑자기 왜 화를 내?'라고 말하는 경민의 태도를 보았을 때 경민이 문제

해결을 도우려는 자신의 마음을 은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라는 경민의 말을 통해 은기는 경민이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 않고 가르치는 말만 했기 때문에 화가 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지갑을 잃어버린 은기와 경민이 서로가 한 말의 의도나 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언어적 민감성'은 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성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이해로 볼 수 있다.

3. <답> ⑤

제시된 대화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 경민에 대한 은기의 서운함이 드러날 뿐, 은기가 서로의 일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①, ②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를 통해 은기가 자신을 가르치는 의미의 잔소리를 하는 경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냄을 알 수 있고, 경민이 자신의 처지에 공감할 줄 모른다고 여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자신의 조언을 들은 은기가 화를 내자 '응? 갑자기 왜 화를 내?'라고 말하는 경민의 모습을 통해 경민은 은기가 은기를 도우려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올바른 지갑 간수 방법을 조언하거나 지갑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경민의 모습을 통해 경민이 대화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답> ①

위 대화에는 문제 상황에 처한 상대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의 문제점만 지적한 것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 있다. '학생1'과 '학생2'의 대화에서도 '학생1'의 문제 상황에 대해 '학생2'가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의 문제점만 지적하여 '학생1'의 감정이 상황이 드러나 있다.

②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화일 뿐, 위 대화 상

황과는 거리가 멀다.

③ 당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사용하는 상황이 드러나는 대화일 뿐, 위 대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④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 중 하나인 전문어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화일 뿐, 위 대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⑤ 지역 방언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화일 뿐, 위 대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5. <답> ①

어사가 농부에게 '아니한지?'와 같은 낮춤말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양반 신분에 어울리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은 말장난을 거는 것일 뿐, 상대를 비웃거나 깔보며 말하는 행위인 조롱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② 컴컴한 것에 대해 해가 내리쬐는 기운에 해당하는 '별'과 같은 발음의 농기구인 '벧'을 사용하여 답하거나 벧을 달았으면 더울 것이라는 말에 대해 물 위에 떠내려가는 얼음덩이에 해당하는 '성엷장'과 같은 발음의 농기구인 '성엷장'을 사용하여 답하는 것 등을 통해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응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한 농부'가 어사에 대해 '언어먹는 비렁뱅이 녀석이 반말 짓거리가 웬일인고?'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늙은 농부가 어사에 대해 '그분을 자세히 뜯어보니, 물골은 비록 허술하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양반 신분인 상대에게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늙은 농부가 '한 농부'에게 '아서라. 애, 그런 말 마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반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인물을 지칭하는 말을 통해 늙은 농부가 나이가 더 많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답> ③

어사의 태도를 꾸짖는 '한 농부'의 말을 통해 어사는 늙은 농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반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 사회의 특성상 나이가 어리더라도 양반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어사가 나이가 많더라도 신분이 낮은 농부에게 반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② 어사는 농부에게 '아니한지?', '더우려니?'와 같은 낮춤말만을 사용하고 있다.

④ '한 농부'가 어사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사의 꼴이 거지와 같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늙은 농부에게 반말을 하였기 때문일 뿐, 신분보다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늙은 농부가 '한 농부'를 말리며, '물골은 비록 허술하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에서 상대가 양반 신분임을 근거로 들고 있음을 통해 신분보다 나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어사가 언어유희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당대 모든 양반 계층이 주로 사용한 대화 방식으로 볼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답> ④

이 도령이 상대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상대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청자인 늙은 농부가 이 도령의 표현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어사가 낮춤말을 사용하거나 농부가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어사는 신분 체계상 높은 신분인 양반에 속하고, 늙은 농부는 양반에 비해 낮은 신분인 평민에 속한다. 이에 따라 어사는 늙은 농부에게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고, 늙은 농부는 어사에게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⑤ 늙은 농부가 '한 농부'에게 '아서라. 애, 그런 말 마라. 그분을 자세히 뜯어보니, 물골은 비록 허술하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 도포 자락이 아주 맹물은 아니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답> ③

농부는 이 도령의 계속되는 말장난에 농기구 '벧'과 햇빛을 의미하는 '별', 농기구 '성엷장'과 얼음을 의미하는 '성엷장', 소의 신체 일부 '양지머리'와 빛이 비치는 따뜻한 곳을 의미하는 '양지'와

같은 동음이의어를 통해 답하고 있다. 농부의 대답에 대해 이 도령이 이어지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도령이 농부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아니한지, 더우려니, 차지'와 같은 표현은 각각 '아니한지요, 더울 텐데요, 차지요'와 같은 말의 낮춤 표현에 해당한다.

② 농부는 이 도령에게 말할 때 모든 말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붙이며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④ '한 농부'가 이 도령에게 화를 내며 '비렁뱅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늙은 농부가 '한 농부'를 말리며 '그분을 자세히 뜯어보니, 몰골은 비록 허술하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 도포 자락이 아주 맹물은 아니로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9. <답> ②

<보기>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 어휘로 '생선, 문상, 버카총' 등이 있다. 이는 청소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행어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지역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지역 방언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보기>의 대화는 같은 지역의 말인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 방언과 관련이 없다.

③ <보기>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 어휘로 '생선, 문상, 버카총' 등이 있다. 이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행어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성인층에 해당하는 '엄마'와 청소년층에 해당하는 '소연'의 의사소통 상황인 것은 맞지만,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보기>의 대화에서는 '생선, 문상, 버카총'이라는 단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만 드러날 뿐, 성별에 따른 어휘, 말투, 표현, 억양 차이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문제는 확인할 수 없다.

10. <답> ④

영호와 윤석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외향적, 내성적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 요소와 관련이 있을 뿐, 집단적 특성의 다양성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영호와 윤석은 같은 나이에 해당하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으로,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① 영호는 윤석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고, 윤석은 영호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너무 친한 척을 한다고 여기는 오해를 할 수 있다.

②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이런 저런 질문을 하며 상대와 대화를 시도하는 영호는 외향적, 사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상대의 질문에 길게 답하지 않고 말수가 적은 윤석은 내성적이고 낮을 가리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③ 처음 보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친근하게 대하는 영호의 태도에 내성적인 성격의 윤석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⑤ 영호는 윤석의 내성적 성향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윤석이 영호를 편하게 여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윤석은 영호가 말을 거는 것이 자신과 잘 지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영호를 대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11. <답> ①

A는 상대의 단답형 대답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상대가 말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② 제시된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것일 뿐,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제시된 대화가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지역 간 어휘나 억양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지역 간 어휘나 억양의 차이는 개인적 특성이 아닌 집단적 특성의 차이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④ 제시된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와 B의 성별은 제시된 대화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⑤ 제시된 대화가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A와 B가 직장 동료이며 서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연령으로 인한 세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 <답> ③

<보기>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경상도에서 주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칠 때 '정말이니?', '진짜니?'의 의미로 사용하는 말인 '맞나'의 의미를 칠봉이 표준어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표현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과 경상도라는 지역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보기>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 방언으로 인한 것일 뿐,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은 관련이 없다. 나정과 칠봉은 서로 편한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같은 세대에 속하는 인물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보기>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 방언으로 인한 것일 뿐, 성별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④ <보기>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 방언으로 인한 것일 뿐, 개인의 기질에 따른 성향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⑤ <보기>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 방언으로 인한 것일 뿐,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적절한 말하기를 활용하지 못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13. <답> ①

'기질, 성향'은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지만, '성별'은 집단적 특성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②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어휘 등 개인의 성장 과정에 따라 선호하는 어휘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③ 듣기·말하기 방식은 듣기, 말하기, 표현, 말투 등 언어 사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날 수 있다.

④ 세대에 따라 젊은 층에서는 비속한 표현, 유행어를 많이 사용하고 노년층에서는 한자어, 경어

등을 많이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표준어를,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언을 많이 사용한다. 직업에 따라 의료계, 법조인, 기술직 등의 직업군에서는 해당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를 많이 사용한다.

⑤ 언어생활을 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우습거나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고 상대의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는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4. <답> 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대화에 반영하는 것은 단점을 들은 상대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볼 수 없다.

②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인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자신의 언어 습관이 듣기와 말하기 중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성찰하여 자신의 언어 습관만 고집하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극복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특정 지역의 방언이 표준어가 아니라고 하여 고쳐야 한다거나, 말투가 낮설다고 하여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 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답> ④

표준어가 아니라 방언에 지역의 전통과 풍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어의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가 모든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같은 내용으로 교육해야 할 경우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① 표준어는 다양한 지역 방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으로 삼은 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언이

서술형 기출 문제

1. <답> 유행어
2. <답> 엄마와 소연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소연이 쓴 유행어의 뜻을 엄마가 잘 몰랐기 때문이다.
3. <답> 어른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유행어는 가려서 쓰고, 그 말을 사용할 때에는 뜻을 알려주고 사용해야 한다.
4. <답>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분명한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신분 질서에 따라 어사는 농부에게 낮춤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고, 농부는 어사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5. <답> 은기의 대화 방식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해당하고, 경민의 대화 방식은 문제 해결의 과정에 해당한다.

서지정보

저자 이태훈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2372-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2.03.03

가격 1,500원

값 1,500원

55710



ISBN 979-11-377-2372-6 (EPUB2)